

무덥고 습도 높은 쿠이아바...아레나는 철야공사중

(판타나우 아레나)

남장현기자의 여기는 쿠이아바

러시아와 1차전 치를 경기장 가 보니...

활주로 확장·도로정비...도시전체가 공사중 판타나우 아레나엔 대형트럭·인부들 분주 그라운드·관중석·장내시설 등 막바지 작업

그곳은 한국축구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의 역사가 시작될 장소였다.

22일(한국시간) '아마존 남문'으로 불리는 브라질 마토 그루스주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아레나(Pantanal Arena)를 찾았다. 상파울루에서 2시간 정도 비행기로 날아간 끝에 당도한 여기서 홍명보호와 러시아가 2014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H조) 1차전(6월18일 오전 7시)을 갖는다.

잔뜩 기대했던 쿠이아바의 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하필이면 이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뇌우가 쏟아졌다. 기온은 평소 보다 낮은 섭씨 29도가량이었는데, 여기에 끈끈한 습기까지 더해져 불쾌지수는 오히려 높아졌다. 지금은 이곳은 겨울철이지만 월드컵 개최 도시 가운데 쿠이아바와 마나우스 등 아마존 지역에서는 계절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이아바의 겨울철은 습도가 약간 줄어들겠지만 연중 내

내 무더위가 가시질 않는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다.

쿠이아바는 도시 전체가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항은 활주로나 청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차선 확장이 되고 있는 도로도 군데군데 움푹 패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쏟아지는 장대 빗줄기를 처리할 배수시설도 부족했고, 골목마다 발견 휴탕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지만 공사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였다.

판타나우 아레나도 마찬가지였다. 본래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차로 이동 거리가 5~10분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이날은 폭우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고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며 이동하는데 족히 30분이 넘게 소요됐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헤맨 끝에 어렵사리 다가선 경기장 주변에는 보기 흉한 철골들과 콘크리트 구조물 등 공사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경기장 본부석 맞은편으로 보이는 곳 외곽에 대형 크레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고, 여러 대의 레미콘들과 대형 트럭들이 현장을 쓸 없이 들락거렸다. 근처 간이 사무소에서 식사를 마친 듯한 공사 인부들도 교대 작업을 위해 각자의 구역을 향해 잔걸음을 옮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부들이 아간에는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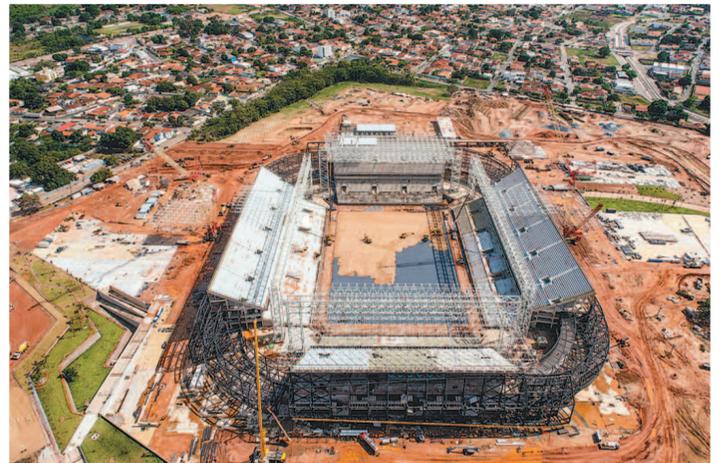
기가 시기인지라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철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진짜 그렇게 해야 했다. 쿠이아바를 대표한 축구 클럽인 믹스투의 홈구장 베르다우를 허물고 2010년 5월 시작된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 31일 4만2968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이 완공돼야 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작년 10월 건설 현장 화재로 지붕 일부가 타버리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월드컵조직위원회측은 판타나우 아레나의 완공 시기를 4월로 조정해야 했다.

그래도 실험 정신만큼은 확실히 인정할 만하다. 시공비 5억1900만 헤알(약 2700억원)을 들인 이 경기장은 대개 쓰레기 재활용 자재로 구성됐다. 경기장을 둘러싼 지붕도 폴리스티렌이라는 스폰지 형태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졌다. 당시 화재 피해가 예상보다 컸던 이유다.

자신을 공사 현장 간부라고 소개한 페드로(47)씨는 "공사 기한이 자주 늦어진다고 걱정하는 외부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브라질의 월드컵 개최에는 전혀 문제없다. 더 이상 기한이 연장될 일도 없을 거다. 기대 이상의 경기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장 공사 현장은 신분을 밝히고 나니



한국이 러시아와의 운명의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를 브라질 마토 그루스주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아레나. 월드컵 개막이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다. 쿠이아바(브라질) | AP뉴시스

외부 사진 촬영이 가능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한 내부 촬영은 여러 가지 보안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월드컵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승인이 떨어지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눈으로 어렵듯이 공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나중에 잔디를 깎을 그라운드 밑바닥과 관중석 및 취재석 스탠드 공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처럼 보였고, 선수단 라커룸 등 장내 시설도 거의 완성이면 도색을 겸한 페인트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LANEIGE HOMME

GUY'S WISH

수분에 산소를 더해 송증기의 피부를 구현하다

라네즈옴므 액티브워터 크림

신소·농도가 높은 Active Water로 피부 재생 능력 강화 | 비르는 순간 신뜻하게 흡수되며 24시간 지속되는 초강력 보습막



쿠이아바를 찾은 22일(한국시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쏟아졌다. 배수가 잘 안 돼 도로에 시벨건 휴탕물이 쏟아지는 모습(왼쪽). 올세션스런 분위기가 풍기는 쿠이아바 시내 전경. 쿠이아바(브라질) | 남장현 기자

베이스캠프 이구아수 6월엔 영하...쿠이아바는 섭씨 33도

■ 6월 극과 극 기온 경기력 변수

브라질 포스 도 이구아수에서 일주일 간 진행된 1차 강화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지 미국으로 이동한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시선은 러시아와의 2014브라질월드컵 예선 조별리그(H조) 1차전에 맞춰져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6월18일 쿠이아바에서 격돌한다. 4강 신화를 쓴 2002한일월드컵과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일군 2010남아공월드컵을 보면 예선 1차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거스 허딩크 감독도 "러시아와 최소 무승부 이상을 해야 한다"며 첫 승부에 올인 하라는 뜻을 전했다.

일단 홍명보호의 월드컵 본선 프로젝트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태극전사들부터 스태프까지 선수단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 확보를 위해 2014년 신년 훈련의 첫 걸음을 이구아수에서 댄 대표팀이다. 홍 감독도 "선수단 모두의 월드컵 시뮬레이션과 여행연습을 의도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큰 변수가 있다. 기후와 날씨다.

대표팀이 경험했던 1월의 이구아수는 굉장히 뜨거웠다. 현지 입성 첫날(14일·현지시간)과 이튿날 한 두 차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쏟아졌지만 이후부터는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다. 여기에 눅눅한 습기가 동반돼 불쾌감이 더해졌다. 평균 섭씨 33도였지만 오후 2시 무렵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구아수의 날씨에 촉각을 기울이는 건 바로 여기에 월드컵 기간 중 홍명보호의 베이스캠프가 차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6월의 이구아수 날씨는 1월과 상당히 다르

다. 이 무렵 지구 남반구 브라질은 늦가을이다. 6월 초 기온은 섭씨 20도로 떨어진다. 대회 조별리그 막바지와 토너먼트 라운드를 준비할 시점인 6월 말이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 10도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현지 교민은 "작년 6월은 새벽녘에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상당히 추웠다"고 한다.

심지어 이구아수 지역 내 숙박업소에는 대개 난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다. 객실마다 에어컨에서 파스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가 전부다. 태극전사들이 여장을 풀 최고급 수준의 버번 카타리타스 컨벤션 & 스파 리조트도 다른 호텔들과 똑같다.

그에 반해 러시아전이 열릴 쿠이아바는 11월 우기를 제외하면 연중 무덥다. 아마존 남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인 이곳의 6월은 섭씨 33도에 달한다. 차이가 있다면 1월 기승을 부리던 엄청난 습도가 사라지고 건조한 더위가 찾아온다는 점이다. 그저 뜨겁기만 한 중동 날씨와 비슷하다. 다소 쌀쌀했던 이구아수에 머물다 갑작스레 쿠이아바로 이동할 경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동계 경기를 준비하다가 하게 경기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홍 감독도 경기 일정에 딱딱 맞춰 쿠이아바로 이동하는 대신, 좀 더 빨리 입성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격전지 브라질로 떠나기 직전인 5월 말, 평가전을 겸한 전지훈련지 선정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대표팀은 LA 등 미국 서부를 고려했지만 쿠이아바와 큰 차이가 없는 미국 동부 플로리다주의 해안 도시 마이애미를 검토 중이다.

쿠이아바(브라질)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지구 최대의 습지...평균 31도 브라질서 가장 더운 지역

● 쿠이아바는 어떤 곳?

남미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한 쿠이아바는 브라질 마토 그루스주의 주도이다. 총면적이 3538km²에 달하지만 밀도가 낮아 인구는 인근 지역까지 약 100만 명 정도. 분지 지형의 이곳은 마나우스와 함께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더운 곳으로 꼽히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31도이다. 지구상 최대 습지인 판타

나우 지역에 있어 월드컵이 열릴 6월에도 대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브라질의 섬머타임(Summer Time·일광절약시간)이 적용되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보다 12시간이 느리며 월드컵 개막 시기에 13시간의 시차가 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 @sd_d02